# 양촌선생(陽村先生) "서천견록(書淺見錄)"

〈지난호에 이어〉

이 두 가지 설은 모두 일의 이치 에 절실하여 다른 사건으로 증거를 삼을 만한 것도 없어 어느 누구도 단정하지 못하였다.

내가 전부터 반복해서 이를 생각 해 보았는데 삼숙이 외부에서 유언 비어를 퍼뜨렸으나 화는 매우 다급 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며, 태 공과 소공이 안에서 협력하여 도와 그 형세가 매우 위태로운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. 삼숙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다만 내(주공)가 섭 정을 하기 때문이다. 내가 만약 피 하여 밖에 머물면 그들의 유언비어 가 구실로 삼을 곳이 없다. 그리하 여 왕실이 저절로 편하여질 터이고 형제간의 우애도 온전해질 것이다. 이것이 주공이 동쪽에 머물게 된 뜻이다. 그래서 2년을 피하였는데 도 유언비어가 그치지 않았다. 주 공과 삼숙(三叔)의 잘잘못이 저절 로 분명해졌고, 왕실을 넘보는 뜻 이 주공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. 성왕의 의심이 비로소 풀어지 면서 "죄인이 누구인지 알았다"고

그러나 주공의 마음이 어찌 피해 있으면서 삼숙의 죄를 세상에 밝히 기를 바랬겠는가? 유언비어의 비 방을 멈추어 형제간 우애의 은혜를 온전하게 하기를 바랄 뿐이다. 그 런데도 삼숙이 죄를 반성하지 않 으니 어떻게 하겠는가? 주공이 이 에 <치효(鴟鴞)>를 지어 왕에게 주 고 자신의 은근하고 불쌍히 여기는 뜻을 담아서 마음 아파할 따름이 었다. 그러다 성왕이 바람과 번개 의 변란 때문에 깨닫게 되어 친히 맞이해 돌아왔다. 삼숙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드디어 무경(武庚)을 협박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그런 후 에야 성왕이 주공에게 동쪽으로 가 서 정벌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.

'거(居)'는 머물러 가지 않는다는 뜻이오, '정(征)'은 가서 바로 잡는 다는 명칭이다. 사신(史臣)이 '동정 (東征)'이라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 '거동(居東)'이라 쓴 것이다. 만약 '거동'을 '동정' 으로 여긴다면 이른 바 "이년죄인사득(二年罪人斯得)"은 "2년에 이미 죄인을 죽였다"는 뜻이 ■ 이 광호(연세大 철학과 학과장)

된다. 그렇다면 주공은 즉시 군사를 인솔해서 돌아왔어야 했다. 외곽에 서 병사들을 데리고 시간을 끌면서 돌아오지 않다가 3년째 되어서 성왕 이 친히 맞이하러 올 것을 기다린 후 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. 처음부터 죽 였다면 어찌 그리도 급박하며, 지금 에야 조정에 돌아온다면 어찌 그리 도 늦은가? 만약에 성왕이 여전히 주 공을 의심하기 때문에 감히 빨리 돌 이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후 세에 병권을 잡고서 임금을 협박하 는 부류나 할 것이다. 신하의 직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. 충성스러운 주공이 이 런 일을 하겠는가? 성인의 기상은 결 코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니 '거동'이 '동정'이 아님은 명백하다.

또 주공이 "고아선왕(告我先 王)"이라 한 것은 그의 뜻을 문왕 과 무왕에게 알리고자 함이다. 그 의 형이 잠시 몇 마디 말로 자신을 모함했다고 하여 금방 칼날을 들이 대고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스스 로 해명하고자 한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? 사신이 먼저 주공

의 이 말을 기록하고 이어서' 거동' 을 쓰고 또 이어서 '친영(親迎)의 일'을 기록했으니 반드시 다른 일 로증거를 구하지 않아도 뜻이 매우 분명하다. 그러나 주공이 피해 산 것은 형제간의 우애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이다.

동쪽으로 정벌 나갈 때는 태공• 소공을 보낼 것을 성왕에게 부탁해 야 합당한데 주공 자신이 몸소 나 선 것은 어째서인가? 태공·소공은 하늘이 명한토벌임을 밝혀 그들의 죄를 바로잡는데 그칠 따름이다. 그러나 주공이 직접나선 것은 그들 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 게 하여 복종시키고 그들을 온전하 게 하기를 바란 것이다. 그러므로 3년 동안 오래 늦추고 급히 서두 르지 않은 것이다. 무왕이 주(紂) 를 정벌한 것은 1월 임진일부터 2 월 갑자일까지 겨우 한 달 걸려서 무력으로 진압했음을 천하에 알렸 다. 하물며 은소전(殷小腆)은 파멸 되어 버린 나머지인데도 무경과 삼 숙의 군사력이 천자의 군사와 대항 할 정도로 충분하여 주공의 파부결 장(破斧缺折)한 군사들이 토벌을 하지 못해서 3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이겠는가? 문왕이 숭(崇)을 정벌할 때도 오히려 공격을 늦추고 천천히 싸워 귀순하도록 하였다.

〈다음호에 계속〉

### 특 기 고

# 충의공(忠毅公) 권응수(權應銖) 장군의 창의(倡義)와 공업(功業) (11)

■ 權 仁 浩 (철학박사,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, 동양철학)

귀향하였다.



선 조 (宣 祖) 31년(무 술;1598년) 정 월에 충의공 은 이 때 53세 로서. 명나라 경리 양호에 게 도산의 포

위를 풀고 돌 아 갈 것을 청하였다. 왜냐하면 당 시 양호가 울산의 도산 왜적 포위 한 것이 13일이나 되었는데, 마침 추운 날씨에 큰 비가 내려 사졸들 이 모두 얼고 굶주렸다. 이를 왜적 들이 알아채고 금백(金帛)과 진기 한 보배를 성 밖으로 던지니 명나 라 군사가 크게 떠들며 다투어 쫓 아가 줍는 고로 왜적이 이처럼 어 지러워진 틈을 타서 군사를 풀어 공격해 왔다. 이에 조명 연합군의 죽은 자가 15-6명에 이르므로 충의 공이 곧 양호에게 포위를 풀고 돌

아가자고 하였던 것이다. 6월에는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. 8월에는 임금의 명으로 충의공으로 하여금 명니 라 제독 마귀(麻貴)의 휘하에 속하 게 되었다. 명나라 군대가 4로(路) 로 나뉘어 파견되었는데 마귀는 곧 동로장(東路將)이었다. 10월에 명 나라 장병을 좇아 진병하여 왜적 의 보루를 압박하고 11월에는 왜적 들이 달아나서 호남과 영남이 모 두 평정되었다. 이때 왜적의 우두 머리 간파쿠(關白관백) 토요토미 히데요시(豊臣秀吉풍신수길, 1537-1598)이 죽자, 여러 왜적 진영의 사 기가 크게 해이해져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남해안으로 모이고, 이에 다가 명나라의 군사가 네 길로 들 어와 남쪽에 모이니 도합 14만이었 다.

충의공은 자주 제독인 동로장 마 귀에게 싸울 것을 청하였으나 마귀 가 듣지 않았다. 이에 충의공이 그 비겁함을 풍자하기에 이르자, 명나 라의 삼로장(三路將) 동일원(董一 元)이 드디어 사천(泗川)에서 적 을 맞아 싸워 대파했고, 서로장(西 路將) 유정(劉綎)이 계책으로 적을 유인하여 스스로 퇴각하게 하였으 며, 수로장(水路將) 도독 진인(陳 璘)이 왜적을 노량에서 무찌르니 왜적들은 배를 타고 외양(外洋)으 로 달아나 사라졌다. 12월에 가의

대부(嘉義大夫;종2품)로 승진하였 는데 경상도 방어사(무관 종2품)를 겸직한 것은 전과 같았다. 다음해인 선조 32년(기해; 1599 년)에 공은 54세로서 2월에 밀양도 호부사(密陽都護府使)가 되었다. 방어사를 겸직한 것은 전과 같았 다. 밀양부는 여러 차례 병화가 할 퀴고 가서 백성들이 거의 다 죽고 탈진하여 있었다. 충의공이 새로 부임해 와서 위로하고 안집(安集) 시키며 때를 빗질하듯 씻어 내고

가려운 데를 긁어 주듯 다스리니. 한 해 동안에 마을과 여항(閭巷)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다. 이 에 충의공은 공자묘(孔廟; 문묘文 廟; 향교 대성전)를 수축하고 몸소 여러 유생을 거느리고 석채례(釋 菜禮)를 행하였다. 그리고 그 당재 (堂齋;향교의 명륜당과 동·서재)를 수리하여 유생과 스승으로 하여금 학습할 장소로 쓰게 하니 고을 사 람들이 모두 흡연히 일어나 힘쓰게 되었다. 가을 9월에는 여러 군현을

선조 33년(경자;1600년) 3월에 충의공이 55세로서 경주를 순도 하여 회재(晦齋) 이언적(李彦迪, 1491-1555, 시호는 문원공文元公)

순시하고 병마를 훈련시켰다.

의 옛 거택을 방문하였다.

여름 4월에 관직이 교체되어 고 향으로 돌아왔고 5월에는 의흥위 부사직(義興衛副司直)을 배수하였 다. 6월에는 선조의 왕비인 의인왕 후(懿仁王后) 박씨(1555-1600)가 승하하자 대궐에 나아가 곡을 하 였다. 8월에 영변대도호부사(寧邊 大都護府使)로 제수되었으나 부임 하지 않고, 다시 부사직 겸 오위장 (五衛將;종2품))을 배수하였다. 9 월에는 여러 재신(宰臣)을 좇아 개 성부에 나아가 명나라 장병을 전송 하였다. 11월에는 병으로 사직하고

선조 34년(신축;1601년) 정월에 는 충의공이 56세로서 정월에 호 분위(虎賁衛) 상호군(上護軍)으로 제수되고 겸하여 사복장(司僕將) 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. 그리고 7월에는 화양동(華陽洞)에 복거(卜居)하였다. 화양동은 고향 의 신녕 고을 서쪽 수리 허에 있는 데, 명나라 사람 두사충(杜思冲)과 서로 도와 집 앞에 반 묘(畝)의 연 못을 파고 버들과 소회향(小茴香) 을 심어 놓고 계옹야로(溪翁野老) 들과 더불어 지팡이를 짚고 소요하 니 한가한 정취가 유연하였다. 10 월에는 예천의 고평리(高坪里)로 약포(藥圃) 정탁(鄭琢, 1526-1605, 시호는 정간공貞簡公)을 예방하 였다. 정탁은 퇴계 이황과 남명 조 식의 문인이다. 이 때 정탁은 좌의 정으로서 벼슬을 그만두고 퇴거하 여 있었다. 이듬해인 선조 35년(임 인;1602년) 9월에는 충의공이 57세 로서 부사직 겸 내금장(內禁將)으 로 제수되니 조정에 올라가 사은하 였다.

〈다음호에 계속〉

데서 생기고

죄악(罪惡)은

### 論語解說(8)

논 어 해 설

■ 權 貞 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

#### 제23장

자장이 물었다. "십대후의 예를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?"공자가 말 하였다. "은나라는 하나의 예를 따 랐으니 그 하례를 덜고 보태어 조 절하였음을 알 수 있고,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은례를 덜 고 보태여 조절하였음을 알 수 있 다. 주나라의 예를 계승하는 자가 생긴다면 비록 백대 후에 일일지라 도 알 수 있을 것이다."

子張이 問하되 十世를 可知也の 山か 子田 殷因於賀禮하山 所損益 을 可知也며 周因於殷禮하니 小損 益을 可知也러니 其或繼周者면 雖 百世라도 可知他引引.

[자장이 문하되 십세를 가지야 이니까 자왈 은인어하례하니 소손 익을 가지야며 주인어은예하니 소 손익을 가지야러니 기혹계주자면 수백세라도 가지야리라.]

[이해]

십대[十代]의 원문은 십세 [十 世]인데 한 세대는 삼십년을 기준 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자기 로부터 아버지는 일대[一代] 이고 자기로부터 자식은 이세라 부르는 점을 참고토록 해야 이해가 쉽다. 주는 이미 공자 때에 작은 제후국 정도의 지나지 않은 실권을 잃어버 린 명목상의 종주에 불과 하였다. 역사의 변천과정을 미루어 먼 장래 일지라도 어렵지 않게 추축해 낼 수 있다는 말이다.

#### 제24장

공자가 말하였다. "자기 조상의 영원이 아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은 이첨이다. 옳은 일을 보고도 행하 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." [원문]

子曰 非其鬼而祭之는 諂也요 見 義不爲는 無勇也니라.

[자왈 비기귀이제지는 첨야요 견의불위는 무용야니라.]

자기 조상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 는 것은 복을 받으려하는 아첨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옳은 줄 알면 서도 슬그머니 물러서는 태도는 곧 양심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행동이 라는 뜻이다.

#### 제3편팔일(八佾)

팔 일편[八佾篇]은 스물여섯 장 [二十六章]이며 대개 예악[禮樂]에 관련된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.

계손씨[季孫氏]가 여덟 대열[隊 列]에 군무[群舞]를 자기 집 마당 에서 추게 하는 것을 보고 공자[孔 子]가 말하였다.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슨 짓인들 저지 르지 못하리오.

[원문]

孔子謂季氏하시되 八佾을 舞於 庭하니 是可忍也일진대 孰不可忍 也리오.

[공자위계씨하시되 팔일을 무어 정하니 시가인야일진대 숙불가인 야리오.]

[이해] 계손 씨는 노소공 때의 대부인인 대 후일 소공을 축출해 제나라로 몰아내었다. 본래 천자 팔열. 제후 육열. 대부사열. 사[士]이 열로 신 분에 따라 체감되며 사람의 숫자 도 대열수와 같다는 설도 있다. 제 후국의 일개 대부가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팔열의 대부를 자기 집에 서 추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도 한 짓이므로 다른 일도 그와 같을

#### 제2장

것이라고 계손 씨의 방자함을 비판

삼대부의 집사람이 옹가를 부르 며 제사를 지냈는데. 공자가 말하 였다. "시경의 제후들이 도움을 받 은 천자는 매우 흐뭇하도다." 하는 노래를 어찌 삼대부 집안의 사당에 단 말인가. [원문]

三家者以 雍徹이러니 子曰 相維壁 公이러늘 天 子穆穆하심 을 奚取於三

서 취해 쓴

[삼가자이옹철이러니 자왈상유 벽공이러늘 천자목목하심을 해취 어삼가지당인고.]

[이해]

삼대부집 원문은 삼가인대 노나 라 맹손 숙손 계손의 세 삼대 부를 가리킨다. 이들은 대부를 조상으로 받들어 제사 지낼 수 없다는 예법 을 어기고 노환공의 자손이라 하여 환공을 제사하였음은 물론 주나라 천자가 종묘에서 사용하는 시경의 옹가로 제사를 마무리한 것 역시도 외람되기 그지없는 무례한 형태임 을 탓하고 있다.

#### 제3장

공자가 말하였다. "사람됨이 인 자하지 않다면 예의가 바른들 무엇 할 것이며 사람됨이 인자하지 않다 면 음악은 해서 무슨 소용이리오. [원문]

子曰 人而不仁이면 如禮에 하며 人而不仁이면 如樂에 何오.

[자왈 인이불인이면 여예에 하 며 인이불인이면 여악에 하오.] [이해]

예악을 닦는 까닭은 사람의 근본 적인 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본바 탕 실체는 그대로 놔두고 겉치레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결과적으

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.

#### 제4장

임방이 예의 근본의 대하여 문 자, 공자가 말하였다. "훌륭한 질문 이다, 예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 리 검소해야 하고 상사를 당하면 형식을 갖추기 보다는 차라리 슬퍼 해야 한다."

[원문] 林放이 問禮之本하되 子曰 大哉 라 問이여 禮與其奢也는 寧儉이요 喪與其易也는 寧戚이니라.

[임방이 문예지본하되 자왈 대 제라 문이여 예여기사야는 영검이 요 상여기역야는 영척이니라.]

[이해]

임방은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 자이다. 올바른 예는 마음속에서 우 러나오는 진실이 근본을 이루는 까닭 에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위선을 조 장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.

#### 제5장

공자가 말하였다. 오랑캐족속들 에게 임금이 있는 거시 중국의 여러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.

子曰 夷狄之有君이 不如諸何之 亡也니라.

[자왈 이적지유군이 불여제하지 망야니라.

형병의 설인데 미개한 오랑캐들 은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 해도 예의가 밝지 못하므로 분명한 중국에서는 어쩌다 임금이 없더라 도 예의를 표하지 않기 때문에 중 국의 나라들이 임금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다.

#### 제6장

계씨가 태산에서산체에서 지내려 하자. "공자 염구에서 말하였다. 너 그를 무도한 죄에서] 구해낼 수 없느냐?"대답하기를 "불가능 합니 다." 공자가 말하였다. "슬프도다. 그래 태산의 산신이 예의 근본을 물 은 임방만도 못하더란 말인가?"

[원문] 季氏如於泰山이러니 子謂冉有曰 女不能求與이 對日 不能이니다 子 曰嗚呼라 曾謂泰山이 不如林放乎이

[계씨여어태산이러니 자위염유 왈 여불능구여아 대왈 불능이니다 자왈오호라 증위태산이 불여임방

[이해 태산은 지금 신 동산 태안현 북 부에 위치한 노나라의 경내에 있는 산으로 계씨가 제후라야 자기 봉지 안에 산천에 제사지낼 수 있는 예 법을 무시하고 일개 대부가 무도한 짓을 감행하려는 것이 중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예의 근본을 질문한 바 있는 임방과 태산의신을 빌려 도리가 아님을 개탄하고 있다. 여 제는 산에 지내는 제사이고 염유는 이름이 구. 자는 자유며 노나라 사 람으로 공자보다 스물이홉 살이 연 소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계씨의 가 재로 봉직하고 있었다.

# 明心寶鑑

명심보감

허원군성유심문에왈) 福生於淸儉

(복생어청검)하고 德生於卑退(덕

생어비퇴)하고 道生於安靜(도생

어안정)하고 命生於和暢(명생어

화창)하고 憂生於多慾(우생어디

욕)하고 禍生於多貪(화생어다탐)

하고 過生於輕慢(과생어경만)하

고 罪生於不仁(죄생어불인)이니

戒眼莫看他非(계안막간타비)하고

戒口莫談他短(계구막담타단)하고

戒心莫自貪嗔(계심막자탐진)하고

戒身莫隨惡伴(계신막수악반)하고

無益之言(무익지언)을 莫妄說(막

망설)하고 不干己事(불간기사)를

莫妄爲(막망위)하고 尊君王孝父

母(존군왕효부모)하며 敬尊長奉

有德(경존장봉유덕)하고 別賢愚

恕無識(별현우서무식)하고 物順

來而勿拒(물순래이물거)하며 勿

旣去而勿追(물기거이물추)하고

身未愚而勿望(신미우이물망)하며

事已過而勿思(사이과이물사)하

라. 聰明(총명)도 多暗昧(다암매)

요 算計(산계)도 失便宜(실편의)

니라. 損人終自失(손인종자실)이

오 依勢禍相膸(의세화상수)라 戒

之在心(계지재심)하고 守之在氣

(수지재기)라 爲不節而亡家(위불

절이망가)하고 因不廉而失位(인 불염이실위)니라. 勸君自警於平生

(권군자경어평생)하나니 可歎可

驚而可思(가탄가경이가사)니라.

上臨之以天監(상임지이천감)하고

下察之以地祗(하찰지이지지)라

明有三法相繼(명유삼법상계)하고

暗有鬼神相隨(암유귀신상수)라

惟正可守(유정가수) 요 心不可欺

(심불가기)니 戒之戒之(계지계지)

**해설:** 자하원군의 성유심문에 말

하기를 "복(福)은 검소하고 맑은

데서 생기고 덕(德)은 겸손하고 사

양하는데서 생기며 도(道)는 편안

하고 고요한데서 생기고 생명(生

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데서 생기

며 과실(過失)은 경솔하고 교만한

하라.

#### 正己篇

○ 蔡伯皆 日(채백개 왈) 喜怒 (희노)는 在心(재심)하고 言出於 口(언출어구) 하나니 不可不愼(불 가불신)이니라.

해설: 채백개가 말하기를, "기뻐하 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고,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삼가 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."고 하셨다.

○ 宰予(재여)가 晝寢(주침)이 어늘 子曰(자왈) 朽木(후목)은 不 可雕也(불가조야) 요 糞土之墻(분 토지장)은 不可圬也(불가오야)니 해설: 재여가 낮잠을 자고 있으

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"썩 은 나무는 다듬지 못할 것이고, 썩 은 흙으로 만든 담은 흙손질을 못 할 것이니라."고 하셨다. **참고:**\*채백개(蔡伯皆)는 후한(後

漢)때의 학자로 이름은 옹(邕),자 (字)는 백개(伯皆)이다. 그리고 채 중랑전집(蔡中郞全集)을 저술 한 분이다.

\*재여(宰予)는 춘추시대(春秋時 代)노(魯)나라 시람으로 자는 子我, 宰我라고도하며, 공자님의 제자 중 의 한 사람으로 말솜씨가 뛰어났다.

蔡..나라채, 伯..만 백, 愼..삼가할 신, 宰..재상 재, 予..나 여, 晝..낮 주,

■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寢..잘 침, 朽..썩을 후, 雕..다듬을 조, 糞..똥 분, 墻..담장, 圬. 흙손 오. ○ 紫虚元君誠諭心文에 日(ふ



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. 눈을 경계하 여 다른 사람 의 그릇된 것 을 보지 말고

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탐내 고 성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 쁜 벗을 따르지 말라.

유익하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 지 말고 내게 관계없는 일은 함부 로 하지 말라. 임금을 높이어 공경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어른을 삼가 존경하고 덕이 있는 이를 받 들며 어질고 어리석은것을 분별하 고 무식한 자를 꾸짖지 말고 용서 하라.

물건이 순리(順理)로 오거든 물 리치지 말고, 이미 지나갔거든 생 각하여 쫓지 말며 몸이 불우(不 遇)에 처했더라도 바라지 말고 이 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. 총 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계 획을 치밀하게 세워 놓았어도 편의 (便宜)를 잃는 수가 있다. 남을 손 상케 하면 마침내 자기도 손실을 입을 것이요, 세력에 의존하면 재 앙이 따른다.

경계하는 것은마음에 있고 지키 는 것은 기운에 있다. 절약하지 않 음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않 음으로써 지위(地位)를 잃는다.

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 계할 것을 권고하나니 가히 놀랍게 여겨 생각할지니라. 위에는 하늘의 거울이 임하여 있고 아래에는 땅 의 신령이 살피고 있다. 밝은 곳에 는 삼 법(三法)이 이어 있고 어두 운 곳에는 귀신이 따르고 있다. 오 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은 가히 속이지 못할 것이니 경계하고 경계 하라."고 하셨다.

참고: 자허원군(紫虛元君)은 도 가(道家)에 속하나 이름과 연대가 분명하지 않다.

紫.. 붉을 자, 虛.. 빌 허, 諭.. 고할 유, 儉...검소할 검, 卑..낮을 비, 천할비 暢..화창할 창, 慢..업신여길 만,

隨..따를 수, 伴..짝 반, 妄..망녕될 망, 恕..용서할 서, 識..알 식, 拒..막 을 거, 追..쫓을 추, 遇..마날 우, 望..바랄망, 昧..어둘 매,

命)은 순하고 사무치는 곳에서 생 긴다." 근심은 욕심이 많은데서 생 警..경계할 경, 守..지킬 수, 欺..속 일 기.

### 일도 철학원 작명 개명 상호 전문

한 것이다.

(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술인의 명예)

희소식: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의정부 전국 안동권문 전국 국가유공자 직계가족에게 타 작명소에서 20-30만원을 할인(반값에)해드립니다. ● 평생 사주 재물은 궁합·택일 건강은 미래운

심리상담자격 노인건강지도자격=노인치매예방질병자격증 소지

전화: 02)987-3265 팩스: 02)996-9857 010-9762-76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위치: 전철 4호선 쌍문역 4번출구 100m(편의점2층)

◆ 옛날 공자님의 말씀 이름이 좋으면 출세. 잘먹고 산다 ◆철학은 미신이 아니고 학문이고 과학이다

서울 도봉구 쌍문3동 88-21 편의점(2층) (심리상담실 운영 자격有)

일도 철학원 권 영 섭



산업용 잉그젯 프린터 국내 제조

## (주) HI-TECH 에이치아이테크

C.P 010-7325-7556

Tel: 070-8780-7556 Fax: 032- 572-9996

### 대표이사권 성 률 (39. 인천. 추밀공파제간공계. 35世)

인천 연수구 송도동 214번지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B동 1019호

E-mail: navy9994@naver.com http://www.HolyInks.com